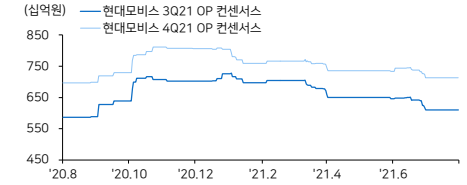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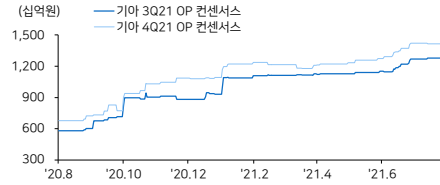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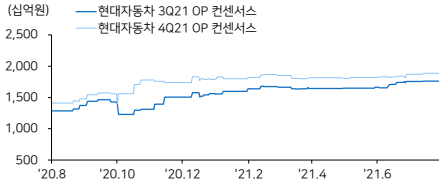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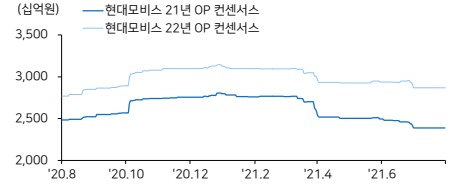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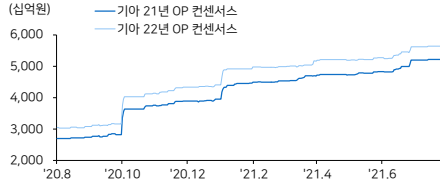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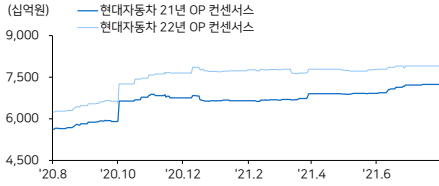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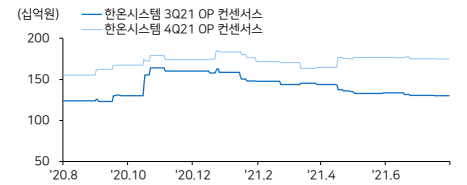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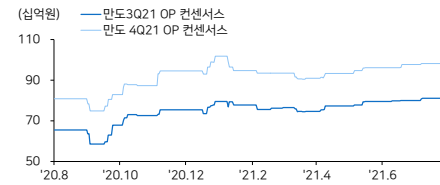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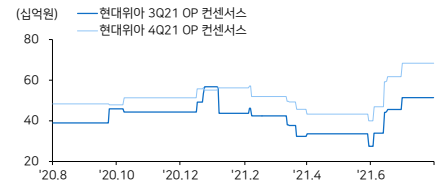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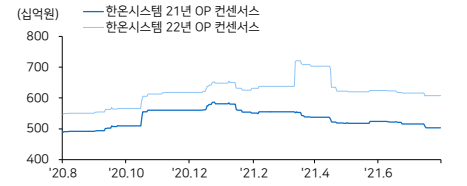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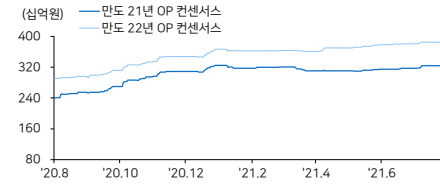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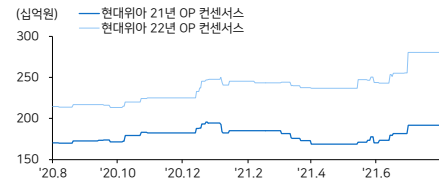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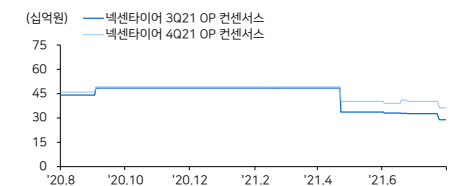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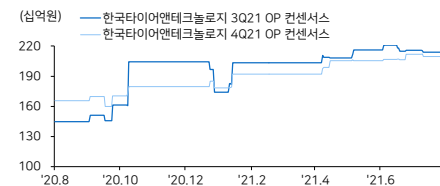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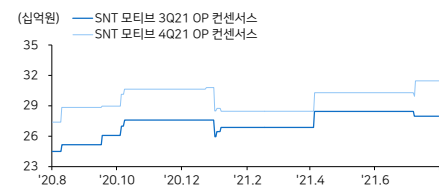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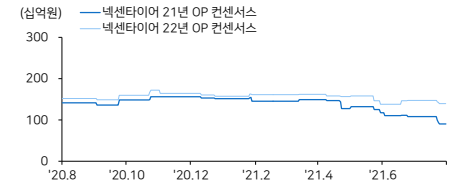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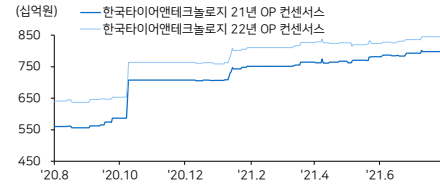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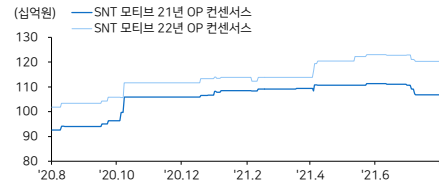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 '친환경' 타고 중국서 부활 노린다 (뉴스토마토)

현대차그룹이 최근 조직 재편, 낙후 공장 정리를 이어 신차 출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중. 다음달에는 베이징현대를 통해 중국시장 전략 모델 '쿠스토'를 출시할 예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도 광저우에 건설 중. <https://bit.ly/3zhZkeT>

전기차 키우려는 콜롬비아...현대차·기아, 현지 투자 검토 중* (이데일리)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콜롬비아에 투자를 검토 중이다. 콜롬비아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분야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과 법인세 감면/비즈니스 혜택 제공 의사를 밝히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함. <https://bit.ly/3mwA1Jx>

GM, '화재 논란' 볼트 생산 중단...LG 협력 지속 (THE GURU)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화재 사고로 논란이 된 볼트EV와 EUV 생산을 중단함. 안전성을 강화하기 전까지 생산을 멈췄다는 방침. 배터리 공급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도 협력을 이어갈 전망. <https://bit.ly/3B7eioz>

월마트, 차세대 딜리버리서비스 '로컬' 출시...자율주행 등·드론 투입 (THE GURU)

월마트는 24일(현지시간) '로컬'(GoLocal)이라는 배달 서비스를 2021년 말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함. 작년에 투자한 자율주행 전기차 스타트업인 크루즈와 웨이모, 뉴로를 포함한 배송 파트너를 로컬에 활용할 계획. <https://bit.ly/3mxWte9>

현대차 울산 3개 공장 생산 중단...협력사 확진자 발생 여파 (연합뉴스)

현대차 사의 협력업체에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함. 현대차는 25일 오전부터 GV80, 팰리세이드, 코나 등을 생산하는 울산 1, 2, 3공장에 공조 모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힘. <https://bit.ly/38gjjuh>

국내등록 전기차 18만대 돌파...현대차·기아·테슬라 순 (한국경제)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는 누적 100만4,0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가운데 4.1%에 달하는 수치. 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가 80만6808대(80.4%)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18만966대(18.0%), 수소차 1만5765대(1.6%)가 뒤를 이음. <https://bit.ly/3sJCZo1>

TSMC 반도체 가격 최대 20%인상...후업체 부담 우려 (SBS Biz)

TSMC가 12나노 이하 반도체 가격은 10%, 그 이상은 15~20% 올리는 계획을 현지 고객사들에 통보. 인상 시기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이며, 일부 업체는 즉시 적용한다고 알려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됨. <https://bit.ly/3mwNbZ0>

애플, 실내조명·내비게이션 애플워치 2건 획득...애플카 개발 한력 (THE GURU)

애플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차량 내부 조명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에서의 교통 알림'에 관한 특허권을 획득함. 애플카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며, 애플카는 2024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Bb8vy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